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제언

심상규\*

### 1.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와 소비자 기호의 범세계화 등 경제여건 변화는 경제구조를 뒤바꾸어 놓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소기업의 부상을 꼽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불패신화로 여겨졌던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을 경험하면서 우리 정부도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기술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생산요소 중심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진화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기존의 노동력이나 자본력이 아닌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리콘 벨리로 대변되는 미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프로그램(SBIR)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사 등을 거대기업으로 키워내고 있다. 일본과 독일도 자국의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자금과 인력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

\*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e-mail: caushin@hanmail.net)

**정책초점**

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혁신형 중소기업’<sup>1)</sup>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개발사업,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 기술 거래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강화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기술력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도전을 받는 추격형 기술개발(Catch-Up)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환경과 지원제도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II.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주소**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상기업의 효과적인 선정을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 선정기관을 정부주도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시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기술혁신평가시스템인 ‘오슬로매뉴얼’에 기초하여 기술혁신기업을 평가하고 있다<sup>2)</sup>. 사업초기 주축이었던 벤처기업 수는 벤처거품 해소와 일부기업의 추가조작으로 '0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반전세로 돌아서 1만2천개에

이르고 있다. 1천개에서 출발한 기술혁신기업도 연평균 90%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06년에 7,183개까지 증가하였다.

경영혁신기업을 포함한 정부지정 혁신형 중소기업(이하 혁신기업)이 2만2천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08까지 3만개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지정기업 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약 19%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늬만 혁신기업’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듯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성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력은 세계최고대비 75.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년 전과 비교한 기술력도 2.2% 상승에 그쳐 기술발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주요 경쟁국인 중국기업과의 기술격차 격차는 오히려 3.3년에서 3.2년으로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통적 강세영역인 제조와 생산관리 분야의 경쟁력은 평균(75.8)을 상회하고 있지만,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디자인, 제품기획 및 신기술개발 분야의 경쟁력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발전 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1〉 정부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벤처기업[A]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기술혁신기업[B]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경영혁신기업[C]	-	-	-	-	-	2,619
혁신형중소기업[D=A+B+C]	12,482	10,634	10,077	10,729	13,186	22,020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통계시스템(<http://www.venturein.net>), 중소기업청, 이노비즈기업 지정현황·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기업

## 정책초점

〈표 2〉 세계최고수준 대비 현재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 =100)

	제품 기획	디자인	신기술 개발	제품 설계	부품 공정	제조	생산 관리	사업화
Inno-Biz 벤처기업	73.0	71.8	74.4	78.1	75.6	78.5	76.4	75.6
일반기업	74.8	72.9	76.5	78.1	76.1	77.6	76.5	75.5
일반기업	72.2	72.1	70.9	74.0	74.0	77.5	76.5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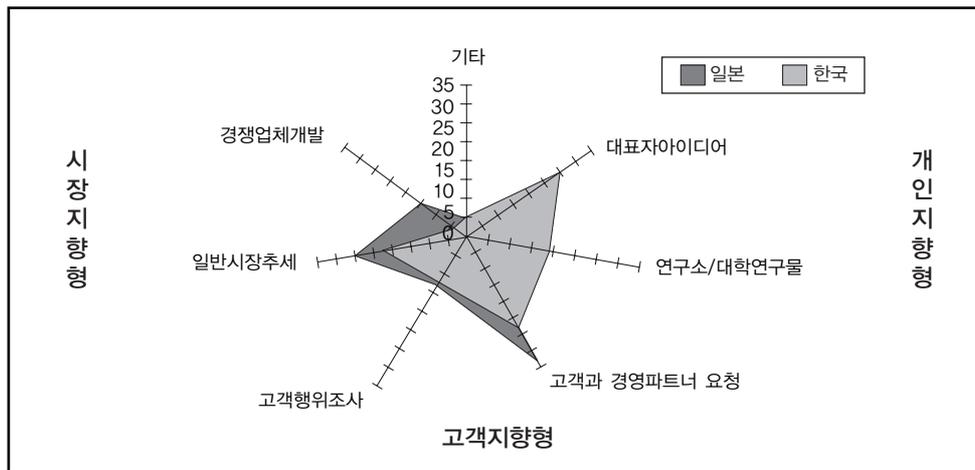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200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혁신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개발과 제품설계 분야의 경우 혁신기업의 경쟁력이 4~6%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특성, 투자비용 및 정부지원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품기획, 디자인 및 부품공정 분야의 경쟁력은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측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혁신기업의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는 '밀어내기식' 기술개발과 정부의 비효율적 지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Ⅲ.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기업내부 요인은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필자의 설문조사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설문조사는 '06년 4월중 2주에 걸쳐 458개 정부인증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FAX 전송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혁신기업의 시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기획이다. 기술은 최종적인 판매목적 위해 개발되므로 시장성을 상실한 기술력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생산제품의 시장성을 결정하는 아이디어

〈그림 1〉 한국과 일본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원천



자료: (일본)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쟁력 제고방안

## 정책초점

어의 경우 일본기업은 일반시장추세 등의 시장 지향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획득함으로써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혁신기업은 주로 대표자와 연구소 발간물에 의존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 생산된 제품이 시장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지향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것은 경영자가 과거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에 근거하여 창업이 이루어지는데 기인하고 있다. 둘째, 폐쇄적인 기술개발 과정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위탁방식의 기술개발은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은 개방형 기술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기업은 자사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기술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사기술을 과대평가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일본기업에 비해 기술개발 소요기간이 길고 자체적인 개발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제품을 적기에 출시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외부 환경의 대표적 저해요인은 기술개발자금의 공급부족을 들 수 있다. 혁신기업은 업력이 짧고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보유 비중이 높아서 신용위험이 큰 특성을 가진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기술력에 기초한 기술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모든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민간금융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담보나 보증기반 대출만을 선택적

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혁신기업은 자체조달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혁신기업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고수익의 경영특성을 가지는 혁신기업은 용자보다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이 적합하지만 경영자는 투자자의 경영간섭과 지분분산을 우려하여 자금조달을 꺼려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연속성이 부족한 지원정책도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개발은 아이디어 기획, 기술개발, 시제품생산 및 제품사업화 단계를 반복하면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단계별 균형발전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해 진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기술개발 단계에 집중됨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설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혹은 아이디어 기획 활동의 제약으로 기술개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거래 부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술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하다.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기술직 출신이 경영자를 담당하는 혁신기업이 67.1%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거래 활성화는 개발기술의 사업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혁신기업은 사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자금회수가 가능하여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술거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기

## 정책초점

술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 연구기관 개발기술의 민간부문으로 이전율(이전건수/개발건수)이 20.3%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혁신기업 개발기술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전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 IV. 한국과 미국의 기술지원제도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기술혁신지원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은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이다<sup>3)</sup>.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I 단계에서는 개발기술 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II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III 단계는 직접지원 대상이 아니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별도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1억불을 초과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현재 국방부, 상무부, 농림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되 일단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도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I 단계 신청기업 중에서 승인받은 기업체는 15~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II 단계에서 승인받는 비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I 단계의 승인비율이 2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업에 비해 미국기업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의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프로그램은 혁신기업이 II 단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 단계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II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배제시켜 기업들의 기술개발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단일화로 개발기술 대체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개발상품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표 3〉 미국의 혁신기업 승인비율 추이

(단위: 개, %)

	I 단계			II 단계		
	신 청	승 인	승인비율	신 청	승 인	승인비율
2004	30,766	4,638	15.1	3,604	2,013	55.9
2003	27,992	4,465	16.0	3,267	1,759	53.8
2002	22,340	4,243	19.0	2,914	1,577	54.1
2001	16,666	3,215	19.3	2,566	1,533	59.7
2000	17,641	3,172	18.0	2,533	1,335	52.7
1999	19,016	3,334	17.5	2,476	1,256	50.7

자료: SBA, The small business economy

## 정책초점

〈표 4〉 미국의 SBIR 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건, 백만달러)

	I 단계			II 단계			합계	
	건 수	금액	비율	건 수	금액	비율	건 수	금액
2004	4,304	497	24.7	2,044	1,517	75.3	6,348	2,014
2003	4,352	465	26.5	1,764	1,293	73.5	6,116	1,758
2002	4,138	414	27.6	1,595	1,086	72.4	5,733	1,500
2001	3,136	306	26.4	1,479	851	73.5	4,615	1,157
2000	3,172	302	25.4	1,335	888	74.6	4,507	1,190
1999	3,334	299	27.3	1,256	797	72.7	4,590	1,096

자료: SBA, SBIR Program Statistics(<http://www.sba.gov/sbir>)

지원범위는 I 단계의 경우 6개월 동안 1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II 단계는 2년간 최대 75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있다. 단계별 지원액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이디어 개발(I 단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다. 즉,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원자금의 4분의 1정도가 I 단계에 지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개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증거이다.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국가기관과 사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에서는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그에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V.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앞서 본 미국의 기술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탓인지 기술자금 문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기업들도 인력과 자금문제를 가장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술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자금력이 취약한 혁신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연구예산으로 운영되는 KOSBIR 사업을 통해서 혁신기업에게 기술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연간 연구예산이 3백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예산의 5%를 해당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06년 기준으로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 등 16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증가시키거나 출연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정부지원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예산이 국가

## 정책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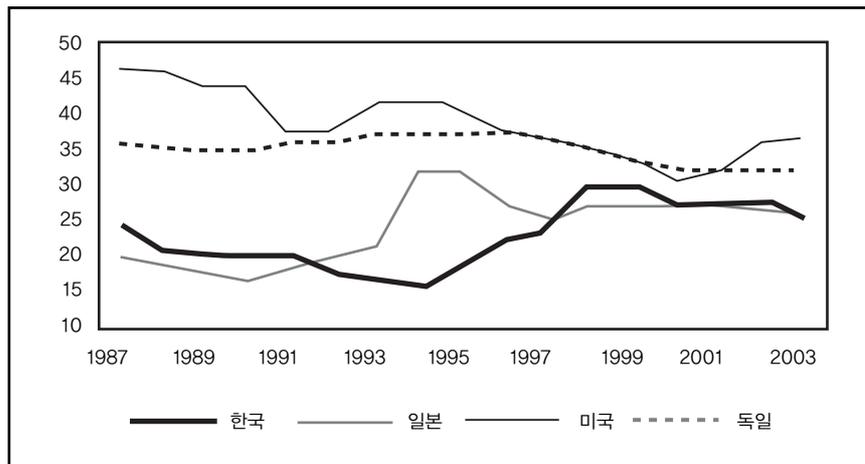
의 연구개발비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은 국가의 연구예산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률은 '93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9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담률은 경쟁국인 미국과 독일에 비해 10% 이상 낮은 상태이고, 일본과는 대등한 수준이나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혁신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개 대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확대하더라도 혁신기업의 모든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술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기술신보와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이 기술 가치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평가지표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과정

에 반영하지 않아 자금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뢰성이 높은 평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기술거래를 촉진시킴으로써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단계별로 균형 있는 혹은 연속성 있는 정부지원을 지적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혁신기업은 아이디어 기획,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과정을 세 번 이상 거쳐야만 일정과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혁신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려면 단계별 균형발전을 통한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술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지원은 기술개발 단계에 집중되고 있어 일견 정책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설비부족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관 통계에 따르면 사업화 실패 기업이 기술개발을 실패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

〈그림 2〉 국가별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률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04)

## 정책초점

로 발표되고 있다. 사업화 단계에서의 실패는 투입된 기술자금을 사장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켜 국가기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이디어 기획과 사업화 단계의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속적인 지원- 시장성 있는 기술개발 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지원- 을 함으로써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이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정부지정 혁신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정부지정 혁신기업 중에서 기술력 약화로 시장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3만개 선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지정기업의 80% 이상이 정부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부실화는 재정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로 국가기술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지정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혁신기업은 자사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15%이상의 경영자가 자사기술이 세계최고보다 우수하다고 응답하는 사실을 볼 때 상당수 혁신기업은 자사기술을 실제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원인은 경영자가 동일업무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해외보다는 국내시장에서 제품을 판

매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자사기술에 대한 높은 자부심은 기술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시장수요를 무시한 평가라면 시장진입에 실패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고가상품으로 인식되던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시장의 단일화는 기존기술을 빠르게 대체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발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요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일본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혁신기업의 개발기간은 긴 상태이고 심지어, 과거보다도 개발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기간 연장이 고도기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을 근거로 혁신기업이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매출액이 적어 발생하는 착시현상일 수 있다. 20%이상 기업은 형식적인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혁신기업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면 기술개발 보다는 유가증권투자 등 영업외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일부기업은 정부지원

## 정책초점

자금을 받고자 연구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금액은 13.6%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업체는 국내시장과 대기업 납품에 초점을 맞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국내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은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대비하여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정보 수집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요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주】

1.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정부는 도전정신이 강한 벤처기업,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혁신(Inno-Biz)형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현재 오솔로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고,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 평가점수가 B등급 이상인 기업체를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3. SBIR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
- ②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
- ③ 주요 연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 ④ 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인 기업

### 【참고문헌】

- 중소기업청(2006),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일본중소기업청(2001), 경영혁신실태조사.
- 중소기업청(각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기업.
- 과학기술부(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2005), 글로벌 M&A 현황과 시사점.
- 사업자원부·한국기술거래소(2006),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통계시스템(<http://www.venturein.net>).
- 중소기업청(각년도), 이노비즈(Inno-Biz)기업 지정현황.
- 일본중소기업청(2003), 일본기업의 경영구조 및 활동.
- 일본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 일본중소기업청(2003),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활용기업의 사업화실태조사.
- 일본중소기업청(2005), 중소기업백서.
-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 정책초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중소기업청(2005),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업연구원(2005),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일본중소기업종합연구기구(2003), 중소기업 해외활동 실태조사.

산업자원부(2006),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청(2005),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

SBA, SBIR Program Statistics(<http://www.sba.gov/sbir>)

SBA(2005), The small business economy.